즉시 배포용: 2019년 9월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주민에게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조치 시행

주 기관을 상대로 전자담배에 대한 의식 교육 프로그램 배포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전자담배와 액상 니코틴 사용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의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확대를 위한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존의 전자담배와 액상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의 학교 기반 프로그램과 마케팅 캠페인을 확장하기 위해 주 기관에 전자담배에 대한 의식 교육 프로그램 배포를 명령하는 행정명령과 법안(S.301A/A.481A)에 서명하여 미성년자 사이의 전자담배와 액상 니코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비용의 치명적인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린 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일반 담배의 대안이 되어버린 전자담배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공공 보건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대의 뉴욕 주민을 이 해로운 제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표를 위해 연합하고 결의를 다졌으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도구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주지사의 이 행정명령은 주지사에게 행정 권한이 있는 모든 주 기관, 부서, 공익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프로그램과 직원 훈련에 전자담배 예방 및 금연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뉴욕주 교육부(State Education Department)의 협업을 통해 즉시 교육구 내에서 이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조치를 개발,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12학년 학생 중 거의 40%와 고등학생의 2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고등학생의 이용률은 2014년에 비해 160% 높아졌습니다.

한편, S.301A/A.481A는 뉴욕주의 담배 사용 예방 강화 및 다른 전략적 활동 중에서도 지역사회와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 마케팅 및 광고 캠페인,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 청소년의 제품 사용 제한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제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담배와 액상 니코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의 담배 사용 예방 및 통제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제공할 것을 담배 예방 및 통제 자문위원회(Tobacco Use Prevention and Control Advisory Board)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Brad Hoylm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은 국가적인 공공보건의 위기이며 이는 특히 놀라운 속도로 니코틴에 중독되고 있는 십대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법안(S.301-A/A.481-A)에 서명해주시고 전자담배에 대해 대담한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보건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반드시 퇴치해야 할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 다수당 대표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보건 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 의장 Gustavo Rivera 그리고 하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해주신 Linda Rosenthal을 포함하여 이 문제를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들께 몹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이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되어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맞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온 뉴욕주 하원의원 Linda Rosentha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되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사망을 고려했을 때, 이 법안에 서명하고 법으로 제정하는 일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전자담배 기업은 현혹적인 마케팅 관행 및 세련된 배경에서 멋지고 젊은 모델이 '멋진' 가향 전자담배를 흡연하며 등장하는 매혹적인 광고 캠페인을 사용하여 젊은 층을 평생의 위험한 니코틴 중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뉴욕의 전통적인 흡연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뉴욕주 담배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State's Tobacco Use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에 전자담배를 포함하면 정보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은 곧 힘이며, 적극적인 전자담배 예방 교육에 투자하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특히 젊은 층의 전자담배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행정명령 및 법안 서명은 주지사가 뉴욕주 보건부에 최근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위기 사항인 전자담배 관련 호흡기 질환의 증가 및 전자담배 사용으로 평생 니코틴 중독이 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지사는 암시장 전자담배 제품에 사용된 "농축제"를 제공, 판매하고 있는 기억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뉴욕주 내의 모든 전자담배 및 담배 판매처에서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비상 규정을 발표하도록 보건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보건부에서 오늘 승인한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PHHPC)의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뉴욕주 내 기업에 전자담배의 위험에 대한 안내를 게시하도록 하는 비상 규정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부에서는 향후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성을 대중에 교육하는 공공 서비스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가향 전자담배 액상의 소지, 제조, 배포, 판매 혹은 판매 제안 등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거의 40%의 12학년 학생 및 27%의 고등학생이 현재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향 전자담배 액상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0.5%에 그쳤던 고등학생 사용은 2018년 27.4%로 16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교 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2016년 4.3%의 사상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가향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러한 추세를 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향은 일반 담배, 시가, 및 무연 담배 시장과 같이 전자담배/에어로졸 산업에서 청년 마케팅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자담배 마케팅에서는 민트 초콜릿, 풍선껌 및 체리 콜라와 같은 가향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해롭지 않다는 오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거의 78%의 고등학생, 75%의 중학생이 담배에 찬성하는 마케팅에 노출되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환자는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흉통), 소화기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체중 감소.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